

# 민주 손학규 체제 출범

## 새 지도부 첫 최고위 회의 '변화·쇄신' 한목소리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 非호남 대선주자 손학규 대표 '전략적 선택'

# 광주·전남 민심은 '정치 9단'

### 전정배·박주선 2순위 지지

“민주당의 종갓집이자 본류인 광주·전남지역 민심의 선택은 역시 절묘했다.”

10·3 전당대회 직후, 민주당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말이다. 각 당권주자 캠프 진영에서 표의 흐름을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대의원들과 당원들은 손학규 후보와 박주선, 전정배 후보를 집중 지원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즉,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비호남 출신인 손학규 후보를 1순위로 지지하고 지역의 정치적 기반 유지를 위해 전정배, 박주선 후보를 2순위로 분산 지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지난 16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권 후보 경선에서 ‘노풍(노무현 바람)’을 일으킨 광주·전남지역의 민심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실시한 광주일보 여론조사 결과, 지역적 조직 기반이 취약한 손학규 후보가 더 보다 구체적인 변화와 쇠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손 후보가 비호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차기 대선 등을 감안한 지역 민심이 당원들과 대의원의 표심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지역 출신인 박주선, 전정배 후보에게는 지지를 보내면서도 정치적 도약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화초리를 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전체 민주당 대의원 가운데 30~40% 정도가 호남 출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광주·전남지역 민심의 흐름이 전체적인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나타난 광주·전남지역 민심은 손학규 대표에게 ‘양날의 칼’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손 대표가 주어진 기간 동안, 변화와 쇠신을 통해 민주당의 정권재창출 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광주·전남지역 민심은 ‘또 다른 선택’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나타난 광주·전남지역 민심은 정치 8단 이상의 선택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러한 민심은 손학규 대표 등 신임 지도부에게는 무한한 책임으로 다가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손 후보가 비호남 출신이라는

# 기득권 다 버리고 통째로 바꿔라

## 젊은 피 수혈...조직·당원 정비 시급 당 화합·정권 탈환 동력 확보 과제

민주당 신임 지도부는 4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첫 최고위원회를 열고 한목소리로 변화와 쇠신을 다짐했다. 전당대회에서 드러난 당심(黨心)을 변화에 대한 요구로 해석하고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국정감사 등에서 야당성을 제대로 드러내겠다고 밝힌 것이다.

손학규 대표는 “우리는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혁신하는 자세 취할 것”이라고 짧막하지만 단호하게 밝혔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국민과 당원은 근본적 변화를 주문했다. 말로 그치지 않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전정배 최고위원도 각각 “삶을 개선하는 진보, 복지의 길로 가야 한다”, “당령 빼고 다 고치는 통째로 확 바꾸는 변화와 쇠신이 있어야 한다”며 변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는 내부로부터의 변화와 쇠신이 우선 필

요하다는 지적이다. <당내 화합>=민주당 새 지도부가 직면한 최대 과제는 당내 화합을 통한 새로운 동력 확보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생긴 끝을 지우고 협력과 경쟁의 구도속에서 정권재창출을 위한 ‘더 큰 그림’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당장, 당권 도전에 실패한 정세균 의원이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현충원 참배를 잇달아 보이콧하고 최고위원직 수락 여부에 대한 장교에 들어갔다. 또한, 대권 경쟁자인 정동영 최고위원과의 관계 설정은 물론 최고위원회에 포진한 당내 주류들과의 원활한 소통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화합을 통한 새로운 도약의 동력을 창출하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다면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다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반적인 관측이다.

<조직·당원 정비>=민주당의 보다

근본적인 쇠신을 위해서는 일부 당직자들에 대한 과감한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후 당내에서 기득권을 형성한 일부 당직자들은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특정인에 대한 지지성향을 보이거나 이런 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등 ‘뿌리부터 썩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과감한 조직 정비가 새로운 민주당 출범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당원 정비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대선과 총선을 치르면서 중이 당원이 대거 유입되면서 150만 민주당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허수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17만 명에 이르는 광주지역 민주당원 가운데 7만명 정도가 자신이 당원인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은 물론 일부는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당내 변화>=민주당의 변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젊은 피’ 수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차기 총선과 대선까지 1년 이상 남았다는 점에서 지금부터라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들을

과감하게 영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을 계파와 관계없이 당내 주요 포스트에 전진 배치, 젊은 세대와의 공감대를 넓히면서 국민으로부터 민주당이 변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보수, 진보 등 정치적 노선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에 걸맞는 정책적 비전을 보다 확실하게 제시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신임 지도부의 당면한 과제는 화합을 토대로 민주당의 변화와 쇠신을 이끌어 국민으로부터 수권정당의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당내에서부터 보다 구체적인 변화와 쇠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주목받는 손학규의 사람들

민주당 손학규 대표 체제가 4일 출범하면서 당내 세력 지형에 지각변동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신주류를 이루게 된 손 대표의 측근그룹이 지난 2년간 정세균 전 대표와 함께 당을 이끌었던 486 당권파를 밀어내고 당 체질 개선과 함께 인적 쇠신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당권을 잡은 손학규계는 노·장·청 및 지역적 조화와 두드러지고 이념적으로는 중도개혁 성향이 다수이다.

노장층에서는 영남지역의 선거전을 지휘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전국 조직을 점검한 박양수 전 의원이 핵심으로 꼽힌다.

영남 민주당 세력의 상징인 이 전 수석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로, 교수 출신인 손 대표와 인연은 짧지만 전대를 계기로 흥금을 터놓고 대화를 나눌 정도로 돈독한 신뢰

## 이강철·박양수 前의원 승리 일등공신 김동철·김재균·이윤석 의원 등 측근

관계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교동계 출신인 박 의원이 ‘조직의 명수’답게 전당대회 기간 동안 꼼꼼히 손 대표 조직을 관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원내에서는 손 대표의 복심이라 할 김부겸 의원을 위시로 김동철·김재균·이윤석·정장선·우제창·신학용·양승조·송민순·전혜숙·이찬열 의원이 측근으로 분류된다.

운동권 출신인 486 인사로는 손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서강대 정치학과 제자인 이남재 전 민주당 대표 비서실 차장, 건국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강훈식 총남 아산지역위원장, 박시영·서양호 전 청와대 행정관, 김윤 서울 서초갑지역위원장 등이 대

표적인 ‘손학규맨’으로 꼽힌다.

특히 측근 그룹 중에는 손 대표가 교편을 잡았던 서강대 출신이 많다. 이남재 전 차장 외에도 총학생회장 출신인 이재화(서울 양천구), 이해식(서울 강동구) 구청장과 조대현 부대변인이 그들이다. 언론계 출신으로는 송두영 고양 덕양을지역위원장(한국일보)과 출신인 차영 서울 양천갑 지역위원장(MBC) 등이 눈에 띈다.

반면, 정 전 대표를 끝까지 지켜주던 최재성·강기정·백원우 의원과 오영식·윤호중·한병도 전 의원, 김 현 부대변인 등은 그동안 누렸던 위세를 뒤로하고 비주류의 설움을 감당해야 할 처지가 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무엇이 선당후사인가” 정세균 거취 고민

<先黨後私>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3위를 차지한 정세균 전 대표가 거취 문제를 놓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전 대표는 4일 오후 권혁기 공보특보를 통해 “손학규 대표와 새 지도부가 안정적으로 당을 이끌 수 있는 길에 내가 할 역할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직전 대표가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손학규 신임 대표 체제의 안정적 출범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세균 전 대표는 향후 한명숙 전 총리와 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 당의

중진이나 원로들을 만나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 상의할 예정이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신임 지도부의 현충원 참배와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채 전당대회와 관련된 자신의 선거운동에 도움을 준 김진표 전 최고위원, 윤호중 수석사무부총장, 백원우·최재성 의원, 한병두·김영주·김교홍 전 의원 등과 함께 조찬을 하며 자신의 거취 문제를 논의했다.


정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선당후사(先黨後私)를 위해 지금 이 시점에

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고민한다”며 사퇴 문제에 관해 의견을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회동에선 “전직 대표로서 새 대표에게 길을 열어주고 밖에서 돕는 것이 옳다”는 의견과 “당내 문제와 정치 현안이 있을 때 지도부에 지혜를 주고 단합을 끌어내는 것이 진정한 선당후사”라는 의견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전 대표는 “적어도 하루 정도는 쉬고 싶다”며 결론을 유보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www.bohae.co.kr  
고객상담실 (080)585-3111

# 보해는 늘 36.5°를 만듭니다

좋은 술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마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해는 세상에 따뜻한 체온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순수봉사단체 젊은임새 사랑나눔미와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분자, 매실 등 원료를 우리 농가로부터 구입해 농촌을 돕고,

환경 보전을 위해 빈 병 재사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한 나눔경영, 자연을 위한 친환경 녹색경영-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입니다.



보해양조(주) 정성공장 전경

경로: 지난날을 잊지 않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려갑니다.